



‘뷰티풀 마인드’

내달 2일 조기 종영

시청률저조·광고 부진

시청률 3~4%의 저조한 성적은 결국 조기 종영으로 이어졌다.

KBS 2TV 월화극 ‘뷰티풀 마인드’가 애초 기획한 16부에서 2회 줄어든 14부로 종영한다. KBS 관계자는 최근 이같이 밝히며 “저조한 시청률에 따른 광고 부진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러 “애초 종영시점이 올림픽 개막 시점과도 겹쳐 조정이 불가피했던 점도 있어 그럴 바에는 올림픽 전에 종영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뷰티풀 마인드’는 8월2일 막을 내린다.

장혁, 박소담 주연의 의학드라마 ‘뷰티풀 마인드’는 뇌의 전두엽 손상으로 공감능력이 상실된 과묵한 천재 의사 이영오가 순수하고 열정적인 교통순경 계진성을 만나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경쟁작이자 같은 의학 드라마인 SBS ‘닥



터스’가 멜로에 치우친 것과 달리 ‘뷰티풀 마인드’는 의학드라마에 수사극, 심리극을 결합해 이야기의 깊이를 추구했다. 그러나 공감능력이 상실된 의사의 캐릭터가 기대보다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못했고, 어려운 의학적 상황을 파고들다가 대중성을 놓치고 말았다.

제작진의 의도나 열정은 임해했지만 이렇듯 완성도에서 아쉬움을 주면서 ‘뷰티풀 마인드’는 품이 많이 드는 의학드라마임에도 결국 조기 종영을 맞이하게 됐다. /연합뉴스

“전반전은 계산착오 ... 후반전 기대하세요”

MBC ‘옥중화’ 이병훈 PD, 기자간담회서 “시청률 기대 못미쳐 실망”

4월30일 방송을 시작한 MBC TV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사극 ‘옥중화’는 올해 상반기 최고 기대작 중 하나였다.

사극 명장 이병훈(사진) PD와 최완규 작가가 뭉쳤고, 주요한 배경인 전옥서(조선시대 죄수를 관리하던 곳) 세트는 만드는 데만도 30억 원이 들었을 정도로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됐다. 절반 가까이 달려온 ‘옥중화’ 성적은 이러한 기대에 영 못 미치는 수준이다. 17.3%로 시작한 드라마 시청률은 계속 18~19%대를 맴돈다.

21일 만난 이 PD도 “전반전은 연출자로서 애당초 기획했던 것에 못 미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일산MBC 드림센터에서는 ‘옥중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PD는 여주인공 옥녀(진세연 분)가 나오지 못한 전옥서라는 소재가 주는 신선함이 시청자에게 크게 먹히지 못했다고 예상했다.

“시청자 마음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준비한 부분을 시청자는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전옥서라는 매우 신선한 소재를 내세웠는데 생각만큼 신선하게 어필되지 못했습니다.”

채담인(첩보원)으로 잠깐 변신했던 옥녀의 액션에 대한 반응도 이 PD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이 PD는 “옥녀가 멋있다는 찬사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찬사가 별로 없어서 놀랐고, 시청률도 오히려 하락해서 고민했다”면서 “계산착오였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실망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PD는 이야기 끝에 “중국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가 종종 오는데, ‘한국 시청자 마음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데 역사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무



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한국 시청자 분석) 이것만으로도 ‘박차다’고 거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정 왕 후와 윤원형, 정난정 등 악역들의 악랄함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여론도 있다.

이 PD는 “이 부분은 특히 정준호가 연기하는 윤원형에게서 우리가 익히 알던 무자비한 권신보다는 한량 모습이 보인다고 말한다.

이병훈 PD는 “생각 없는 악인 캐릭터가 드라마성과(시청률)도 높이는 경우를 자주 봐서 저도 그런 악인을 그려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제가 단순한 악인을 제철적으로 싫어해서 그걸 잘 안 됐다”고 말했다.

옆에 앉은 정준호는 “그동안 윤원형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으로 그려졌는데, 저는 그렇게 정형화된 방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면을 개성 있게 보여줘서 신선함을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전옥서 이야기가 별 볼 일 없었다고 하면 저와 작가가 더 입체적으로 그리지 못한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자책한 이 PD는 후반전을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직 절반이 채 안 지난데다 드라마라는 게 후반부에 달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기본 줄기를

따라가고 웃음과 즐거움, 감동이라는 기본 원칙을 잘 갖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시청자의 호응이 올라 생각합니다.”

‘옥중화’가 절반 가까이 달려오는 동안, 여주인공 옥녀에 비해 남주인공 윤태원(고수의 비중이 적었다. 고수(38)도 내심 답답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사실 매일 촬영하러 가긴 했는데 분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심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방송부터 (윤태원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더라고요.”

고수는 “지난주 방송 보고 윤태원이 직접을 잃었다고 걱정하는 시청자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주부터 바빠진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옥중화’는 고수가 데뷔한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한 사극이다. 고수는 윤태원의 곡절 많은 인생에 따라 시장 유행과 상관 행수, 평시서 주부 등 다양한 모습을 소화 중이다.

고수는 “유행파 시작했을 때는 편하게 현대처럼 연기하려고 해서 편하게 연기했다”면서 “그런데 상단에 들어가고부터는 발성도 바뀌고 변화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악녀 정난정 역의 박주미(44)가 연기력 논란에 대해 “솔직히 정말 부끄럽고 인터넷의 제 연관검색어에 ‘연기’라고 나온 걸 보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도 다소 의기소침한 상태라는 박주미는 연출자인 이병훈 PD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병훈 PD가 첫 방송 후 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연출인 내가 부족해서 박주미씨 장점을 못 살려서 미안하다’고요. 그 메시지를 받고 (감동해서) 남은 기간 PD를 믿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에 폐가 되면 안 되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문소리, 베니스영화제 심사위원 위촉

배우 문소리가 제7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오리존티 경쟁부문(Orizzonti competition)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이 24일 밝혔다.

문소리가 심사를 맡게 된 오리존티 경쟁 부문에서는 전 세계 혁신적인 경향의 작품이 소개된다. 한국배우가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영화인으로는 박찬욱 감독이 2006년 국제 경쟁부문에, 김진아 감독이 2009년 오리존티 경쟁부문에 심사위원으로 베니스를 찾은 바 있다.

문소리로서는 이번이 네번째 베니스행이다. 2002년 ‘오아시스’로 신인배우상을 받은 데 이어 ‘바람난 가족’(2003), ‘자유의 언덕’(2014)으로 베니스와 인연을 맺었다.

영화제 측은 “문소리는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배우로, 그동안 한국 영화



사에 이정표를 설정하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왔다”고 위촉 사유를 밝혔다.

제73회 베니스국제영화제는 다음달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우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이웃집 찰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365 05 세상발전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재)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열린공간 토크 talk(재)
1	00 여름특선 행복한 지도 30 여름특선 영상앨범산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공지락
2	00 2016 서울 국제 유스 앙코르페스타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키즈 사이언스 5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3	55 튜튼생활체조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지원	00 MBC 뉴스 10 독?목?키즈스쿨 55 깨달음원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안녕하세요 스페셜(재)	00 MBC아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특 30 SBS 뉴스플러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으리다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공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별을 꿈꾸다) 55 수상한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셀프디스크클럽 (디스코(따일렛))
12	20 세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특별기획 해외걸작드라마 (한여름 밤의 꿈)	4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별을 꿈꾸다) (재)	10 MBC 뉴스 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스포츠 특선 MLB 핫토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예 05:30 건강 아침 05:40 성공시대 가능 한국인 (도모위의 파수꾼 CCTV 임철규)	09:40 라이보 토크 부모 (가족끼리 와이래) 10:30 한국기행 (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소고기 콩나물밥과 총각구 피클)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캐니멀 09:30 원더블즈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간 (스토리 그 곳) 12:45 지식채널 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즐겨찾 수확 EBS MATH 13:50 원더블즈(재) 14:00 미술탐험대
14:30 부릉부릉 부릉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피터 래빗 15:35 꼬마기사 마이크 15:50 으랏차차 아이쿠 16:00 캐니멀(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크 오늘 (케냐의 꼬끼리 고이원) 20:50 세계테마기행 (세이셸군도 대탐험 1부 - 인도양의 보물섬, 마에) 21:30 한국기행 (기운찬 로드 1부 - 그 바다에 여름이 흐르네) 21:50 EBS 다크 프리퀀시 (남바스 1부 하늘의 수, 파이) 22:45 달라졌어요 23:35 시대 공감 (스토리 그 곳) 24:05 지식채널e(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5일 (음 6월 22일 戊申)

子	48년생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절실한 문제에 부딪힌다. 60년생 입지가 넓어지고 활발해지는 운로이다. 72년생 자기 확신에만 치우친다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84년생 체면에 관련된 일이라면 노출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54, 04	午	42년생 더 할 수 없이 경사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느니라. 54년생 백 번의 구상보다 단 한 번의 실행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 66년생 정확히 알아야만 하느니라. 78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77, 10
丑	49년생 어려움은 잠시일 뿐이니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하라. 61년생 전체일우요. 구우일묘의 기화로 할 만하니 확실히 붙잡아라. 73년생 사실만으로서 대하자. 85년생 실망이 발생하는 전기 가 될 것이나. 행운의 숫자 : 95, 74	未	43년생 힘은 들었지만 보람은 느낄 것이다. 55년생 기대하여 왔던 바대로 이루어지지 신바람나게 되어 있다. 67년생 자신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79년생 대비하는 이만이 손실을 최소화하라. 행운의 숫자 : 71, 87
寅	50년생 전후 사정을 파악해 보고 나서하는 것이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62년생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 예의 주시하라. 74년생 원상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다. 86년생 양당기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64, 39	申	44년생 괜히 나서다가는 실기할 수다. 56년생 우려되는 점이나 모순점을 간과하지 말고 확실히 처리하여 시정착을 최소화 하자. 68년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도를 조절하라. 80년생 의외로 복잡한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94, 42
卯	51년생 선인이 형성되어 발전적인 상황으로 작용하리라. 63년생 평생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중대사가 전개되리라. 75년생 흐름을 뒤바꿀만한 위상이다. 87년생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후일을 기약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8, 61	酉	45년생 본인이 예상해 왔던 바에 틀림없이 적중할 것이다. 57년생 중차대한 일임으로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69년생 성패를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실행함이 더 낫다. 81년생 난이도가 높은 일이니 신중 써야겠다. 행운의 숫자 : 45, 75
辰	40년생 집착은 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악재가 된다. 52년생 확연한 차이를 보이리라. 64년생 바람직한 영국으로 펼쳐지고 있으니 당당하게 나서도 되는 때이다. 76년생 실속이 있어야 한다. 88년생 활기찬 하루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43	戌	46년생 행운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는 마당이다. 58년생 파격적인 재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70년생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 82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실효적인 결과에 이르게 한다. 행운의 숫자 : 57, 18
巳	41년생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두자. 53년생 허심탄화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다. 65년생 가능성이 약하니 기대는 하지 말라. 77년생 개선할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89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함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8, 51	亥	47년생 호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낙담하지는 마라. 59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느니라. 71년생 반작용할 수도 있느니라. 83년생 과정에 충실하면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행운의 숫자 : 60, 3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